뉴스홈 | **최신기사**

유치원 설립자 금괴 배달 의혹 검찰 수사 '하세월'

송고시간 | 2018-10-15 11:52











김도윤 기자 기자페이지

검찰 "3개월 전 송치·교육부 추가 고발로 늦어져"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학부모들을 분노케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금괴(골드바) 배달 의혹 관련 수사가 더 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7월에야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괴(골드바)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금괴를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사립유치원 설립자 A(61)씨 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B감사관이 다니는 교회에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배 기사는 교회에 아무도 없자 B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B감사관은 택배를 반송했다.

이로부터 두 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고 B감사관은 감사 대상 명단에서 A씨의 이름을 확인했다.

A씨는 경기지역에서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택배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교육청은 수사기관에 고발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겼다.

이 같은 내용은 택배가 배달된 지 10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사건을 의정부지검이 맡아 수사과에 배당했다.

그러나 수사는 더뎠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B감사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두 차례 관련 서류만 제출했다"며 "최근에야 검찰에 참고인으 로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쉬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시기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A씨가 추가 고발돼 함께 조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 했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0/15 11:52 송고

#유치원 #기념패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압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연임뉴스











sns **f**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계약사/제휴문의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외국어